



# 돼지전염병 박멸대책 수립배경과 양돈농가에 바라는 사항



배상호 과장  
(농림수산부 가축위생과)

**'95년** 1월 1일부터 세계무역기구(WTO)체제로 전환된 이후 농수축산물의 품목별 수입개방계획에 따라 완전 개방화의 시기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시점에 직면해있고 대내적 여건은 농업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촌노동력 확보문제와 축산업 생산기반의 구조적 취약성 및 축산분뇨 처리문제 등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가 산적해 있는 실정이다.

이제는 개방과 경쟁의 시대에 직면함에 따라 세계각국의 각종 농축수산물 등이 가격과 품질에서 자유로이 경쟁하며 유통되는 시대로 접어들었고, 국내의 축산여건도 이제는 축산물의 가격경쟁력 뿐만아니라 소비자의 기호성에 부합해야 하고 안전식품을 공급해야 하는 상황에서 축산물의 위생적인 품질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앞으로는 식품의 위생관리 및 육류, 우유, 계란 등 축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점점 더 커질 것이므로 이제 우리의 축산업도 이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빨리 전환해야만 이러한 어려운 여건을 극복할 수 있고 여러가지 경쟁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고 본다.

무엇보다도 국내의 어려운 축산여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양돈업계 모두가 질병예방 및 방역관리에 지대한 관심과 공동노력을 기울여 생산비를 절감해야 하겠으며, 항생물질제제나 설파제 등의 과다한 사용을 자제하여 유해 잔류물질이 없는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의 생산·공급에 전력을 집중하여야 할 때이다.

## 1. 국내 양돈업의 현황

우리나라의 국민총생산액중 농림수산업의 비중은 '70년 26.6%, '80년 14.9%에서 '91년에는 7.1%로 감소되고 있으나, 농림수산업 중 축산업의 비중은 '70년 7.9%에서 '80년 8.3%, '94년 9.3%로 계속 증가할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축산농가 중 돼지사육농가는 6.7%이지만, 축종별생산액으로보면 돼지의 생산액이 축종전체의 27.8%를 점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95년중 양돈배합사료

공급량이 4,725천톤으로써, 국내 쌀(정곡)생산량인 4,690천톤보다 더 많이 공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돼지 사육가구수는 계속 감소되고 있으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육규모확대 경향으로 호당 사육두수는 '90년에는 평균 34두에서 '95년은 140두로써 총 사육두수는 641만두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그 내용은 〈표2〉와 같다.

최근의 사육동향을 보면 100두 미만의 소규모 사육가구수는 '95년 3월중 40천호있으나 '96.3월에는 30천두로 가구당 사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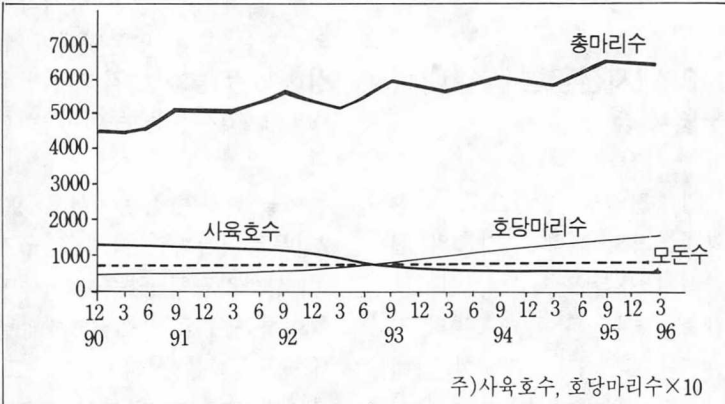
〈표1〉 축종별 농가수 및 생산액

(단위: 천호, 억원)

구 분	한우	젓소	돼지	닭	계
축종별 농가수	540 (66.7)	26 (3.2)	54 (6.7)	189 (23.4)	809 (100%)
축종별 생산액	14,070 (29.7)	10,694 (22.6)	13,160 (27.8)	9,456 (19.9)	47,380 (100%)

〈표2〉 국내 돼지 사육두수 및 가구수

연도별	'86	'90	'94	'95
총 사육두수 (천 두)	3,347	4,528	5,955	6,461
사육가구수 (천 호)	262	133	54	46
호당사육두수 (두)	12.8	34.0	110.3	140.2



〈표3〉 돼지 사육동향

〈표4〉 '95년 각국별 돼지고기 대일수출 현황

구분	대만	덴마크	미국	캐나다	한국	기타	계
냉동	183,495	133,942	32,406	26,797	10,715	25,718	413,073
냉장	83,360	207	76,159	4,582	3,405	97	167,510
합계	266,855	134,149	108,565	31,379	13,820	25,815	580,584
(수입비율)	(46.0)	(23.1)	(18.7)	(5.4)	(2.3)	(4.4)	(100)

두수의 규모화에 따라 대규모 사육마리수는 증가되는 추세이다.

축협에서 조사한 돼지 사육 동향은 다음 〈표3〉과 같다.

수입개방화 시대에 국내 양돈업의 나아갈 길은 돼지고기 생산비를 대만이나 덴마크 등과 경쟁할 수 있도록 생산비 절감에 최선을 다해야 겠고, 이웃에 있는 일본시장을 목표로 돼지고기 수출을 계속 확대해 나가야 하겠다.

지난해의 각국별 돼지고기

대일 수출현황은 다음 〈표4〉와 같다.

## 2. 양돈산업이 당면한 문제점

### 가. 수입개방에 대한 대응

돼지고기의 수입개방계획은 '95.1.1부터 '97.6.30이전까지는 현행양허관세 25%로 수입쿼터를 선정하고, 지육을 기준으로 한 수입쿼터량을 보면 지난해에는 21,930톤, '96년에는

23,392톤, 그리고 '97.6월 말까지는 18,976톤이며, '97.7.1이후에는 현행 양허관세(25%)를 33.4%로 올리되 수입물량은 자유화하도록 되었고, 관세도 2004년까지는 현행관세수준으로 점차 인하조정하여야 한다.

이에따라 양돈농가에서는 심리적 불안감으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는 영세규모의 사육농가는 타업종으로 전업하는 등 점차 사육농가수, 농가당 사육두수 등 구조변화가 예상된다.

### 나. 방역 및 위생관리 문제

돼지생산비 절감을 위해서는 질병예방을 위한 방역관리와 안전한 돼지고기 생산을 위한 위생관리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어미돼지의 임신기간중에는 돼지 전염성위장염, 오제스키병 등의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특히 돼지콜레라는 적기에 접종하여 새끼돼지의 피해를 예방하여야 하며, 이러한 방역관리를 소홀히 하는 농가에서는 매년 계속적으로 질병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염병 피해가 확산되는 원인은 발생신고를 기피하거나 검사를 거부하고 감염된 돼지를 타지역에 판매함으로써 발생지역이 확산되므로 이러한

〈표5〉 주요급성 돼지전염병 발생상황

(단위 : 두)

구분	'90	'91	'92	'93	'94	'95
돼지콜레라	1,284(36)	1,794(26)	1,327(24)	1,353(24)	1,525(19)	1,037(14)
오제스키병	190(2)		2(1)		482(14)	2,016(52)
전염성위장염	77(2)	315(2)	330(2)	2,297(14)	1,067(12)	3,264(36)

※( ) : 발생농가수

방역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부족과 양돈농가의 참여의식이 부족한 점도 문제이다. 연도별 돼지 전염병 발생현황은 〈표5〉와 같다.

또한, 검역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SPS)에 따라 축산물에 대한 유해잔류물질검사는 수입물량뿐만 아니라 국내생산 공급물량에 대해서도 동등하게 검사를 실시해야 하므로 각 양돈농가에서는 돼지 사육기간중 약제사용시 반드시 휴약기간을 준수해야겠고 출하시에는 일정기간 비육후기사료를 급여해야만 하겠다.

### 3. 돼지전염병 박멸대책 수립배경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양축농가의 피해는 가축의 집단폐사, 유산 또는 사산, 산자수감소, 증체율과 사료효율의 저하 등으로 경제적손실이 막대하므로 이를 막기위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국제수역사무국(OIE)이나 외국의 보고에 의하면 가축질병으로 인한 피해가 축산업 총생산액의 약 20%로 발표된바 있으므로, 이를 국내에 적용할 경우 돼지 646만두의 연간 총생산액이 1조 2천 900억원이므로

질병에 의한 경제적 피해액은 생산액의 20%인 2,584억원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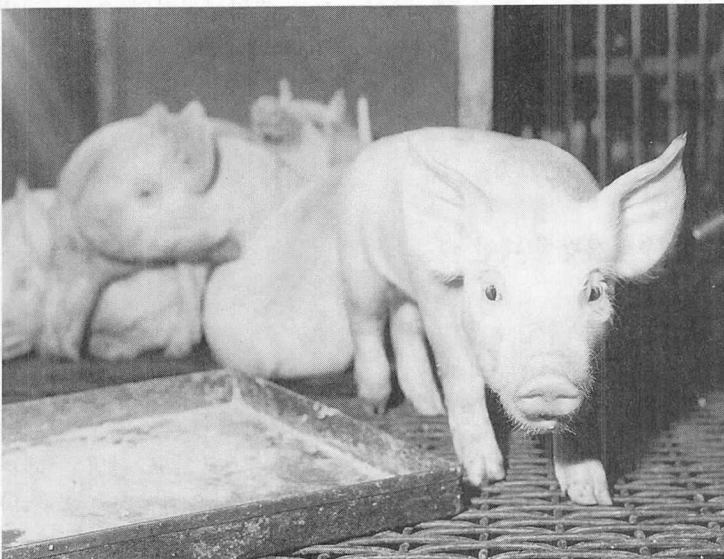
이렇게 전체 양돈농가의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모든 양돈업계가 합심하여 각 농가별, 각 지역별로 방역에 최우선을 두어야만 한다.

이를 위하여 정부에서도 '96. 2월부터 4월까지 학계, 연구기관, 생산자단체, 양축농가 등이 참여하는 주요 가축전염병박멸대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축종별 분과위원회에서 주요전염병에 대한 박멸목표년도 설정하고, 소요예산, 제도개선, 방역담당조직의 확대등을 포함한 박멸대책안을 제출하였으며, 정부에서는 이를 기본으로 하여 주요가축전염병 박멸대책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소요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강력히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우선적으로 피해가 심한 돼지콜레라, 돼지오제스키병을 중심으로 5~6년을 기한으로 박멸목표를 설정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4. 양돈농가에 바라는 사항

정부에서는 가축전염병피해를 막기위하여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예방주사, 검진사업 등을 실시해 왔으나 가축



전염병은 각 지역에서 계속 발생되고 피해도 점차 대형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가축전염병의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방역정책도 중요하지만 양돈농가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지역별 공동 방역에 참여하여야겠고, 각 농장별로 확고한 박멸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때이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지역별로 양돈농가가 모두 참여하여 공동방역을 추진하는 시·군 지역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방역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전염병에 대한 대책은 개별농장에 한한문제가 아니고 인근지역의 양돈농가가 함께 공동으로 대처해야만 한다.

앞에서도 말한바와 같이 가축전염병의 박멸을 위해서는 국가 방역정책보다도 양돈농가의 공동방역참여의식이 제일 중요하므로 양돈농가의 관련업계에서 다음사항을 꼭 지켜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

- 전염병이 발생되어 피해가 발생되거나 증상이 의심될 경우에는 신속하게 시·군·읍·면에 신고할 것이며, 신속한 신고가 없으면 양축농가 모두의 피해임을 인식해야겠고

- 돼지를 새로 구입할 때에는 믿을 수 있는 중돈장이나 양돈장에서만 구입해야 하며,

- 시장이나 중간상인으로 부터 돼지를 구입할때는 농장



에서 일단 격리시킨 후 시·도가축위생시험소의 혈청검사를 받아 감염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이며,

- 농장별로 출입구에는 소독조를 설치하여 외부 방문객이나 가축운송차량, 사료차량 등이 출입시 소독하고 출입을 통제하여 병원체가 전파되지 않도록 하고,

- 전염병방역관리는 내 농장만의 문제가 아니고 읍·면별 또는 시군별 전체 양돈농가의 문제이므로 수시로 협의하여 공동으로 대처해야하며,

- 전염병이 발생한 농장의 돼지는 타농장이나 수집, 중개상인에게 절대로 판매하지 말고, 이동제한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 피해확산을 막도록 하고,

- 예방주사약품을 구입할 때에는 냉장보관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예방접종은 백신스케줄에 따라 적기에 실시할 것이며,

- 또한 각 시도에 있는 가축위생시험소(현재49개소)와 공수의위축운영제도는 양축농가를 위해서 설치 운영하는 일선 방역조직이므로 각 농가에서는 이 조직을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